

전남도, 청년 유입·인구 늘리기 ‘사활’

출생률 급락에 영유아 급감... 아이 낳기·청년 정착·도시민 유치 나서
2023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3080억 투입... 85개 사업 발굴·시행

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 개정 시급

전남도가 오는 2023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소멸기금) 3080억원을 투입해 청년 유입과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펴기로 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전남도가 저출산과 가임 인구 유출로 인해 출생아 수마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다른 지역과 경쟁하기 위한 미래 역량의 근간은 인구, 청년이라는 점에서 전남도의 민선 8기 시책 전반을 아이 낳기, 청년 정착, 도시민 유치에 맞춰 전남도 12개, 시·군 73개 등 모두 85개 사업을 발굴·시행한다. 또 정부, 국회 등과 협의해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규모의 증액,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하 인구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3일 “올해부터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3080억원을 투입, 12개 특별시책을 실시해 새로운 인구 유입의 흐름 형성, 건강한 인구 구조 형성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인구 200만명 선이 무너지던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늦추면서 반전을 시도해보겠다는 것이다. 2021년 전남의 순이동 4487명, 자연 감소 9067명, 등록말소 등 5192명으로, 2020년에 비해 1만 8746명이 감소했다. 감소세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줄고 있다.

일단 전남도는 소멸기금이 앞으로 10년간 지원되는 만큼 기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남만이 가진 특색, 강점을 살려 창의적 아이디어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수행할 방침이다.

전남도와 16개 군이 올해 발굴한 사업은 각각 12개, 73개 등 모두 85개에 이른다.

전남도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멸기금 투자 사

업 발굴을 위해 문금주 행정복지사를 단장으로 사업부서, 광주전남연구원 등으로 TF팀을 구성, 인구소멸지역 16개 군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전남도는 청년만을 위한 문화센터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청년을 통한 건강한 인구 구조 회복’,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복합형 생활문화인프라 조성’과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귀농·귀촌인 창업지원 등 ‘지역 자원 연계 교육·소득·삶의 질 보장’ 등 3개 부문 12개 광역특별시책을 만들 어냈다.

2023년 역점시책으로는 전남 청년 문화센터 건립, 호남 청년 아카데미 운영,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설치 등으로 정했다.

시·군 가운데 신안군은 기초자치단체 소멸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90억원, 2023년 120억원 등 210억원으로 안팎면 자리받고, 쌍용초교의 폐교를 리모델링해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설립, 섬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하고 태평양 도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분교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소멸기금과 함께 내년 시행을 앞둔 인구특별법, ‘고향사랑 기부제’가 위기에 처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의 불씨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멸기금 증액,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정책관은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문제는 더 이상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국가가 나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 소멸기금 5조원 규모의 증액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2 Green 자전거 축제’ ‘2022 자전거타기 Green 자전거 축제’가 13일 오전 광주시 서구 벽진동 영산강자전거길내센터 일원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힘차게 영산강 자전거길을 출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수능 코앞 코로나 재유행 확진자 별도 시험장 확대

오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교육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격리대상 수험생의 응시 시험장을 따로 운영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 10주만에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올해부터 처음으로 확진 수험생이 외출해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대상이다.

13일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걸린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을 기존 108개 학교(680개 교실)에서 110개 학교로 늘리고, 병원 시험장은 24개 병원(93병상)에서 25개 병원(105병상)으로 늘렸다.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7차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올해 수능 응시생의 30% 이상이 졸업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능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 수능에는 96명의 확진자가 응시했는데, 당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3000명 안팎으로 최근의 20분의 1 수준이었다.

광주시교육청도 별도 시험장 2개교, 예비 시험장 1개교, 병원시험장 1곳을 배치하고, 확진자 중 입원치료를 받는 위중증 수험생은 지정 병원인 남구 빛고을 전남대병원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도 확진·격리 수험생을 위해 7곳의 별도 시험장을 마련했으며, 병원 입원 확진자를 위해서는 지역거점 병원 2곳에 8개 병상을 확보했다.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대상은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이다.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일반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일요일 기준으로 두 달여 만에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0시 기준 광주 1520명, 전남 1320명 등 모두 2840명이 신규 확진됐는데, 일요일 기준으로 광주 2365명, 전남 2421명을 기록한 9월 4일 이후 10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북 핵·미사일 확장억제 강화”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13일(현지시간)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열고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등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이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대통령실 따르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3개국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하다.

공동 성명을 통해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고, 북한 미사일에 관한 한미일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을 표명했다.

3국은 또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 등 글로벌 복합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는 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며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함께 일하는 세상,
로 우리가 있습니다.

업무 개시일 2022년 11월 21일 (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합니다.**

새로운 청사에는 광주디지털훈련센터(19층)가 함께 합니다.

새 청사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자로 268, 20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99

찾아오시는 길



교통편

- 지하철 양동시장역 하차 (도보 400m) 1호선 이용
- 버스 천교 하차 시 (도보 90m) 59, 31, 71, 61, 65, 79, 177, 100,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번 이용



광주지역본부



취업지원부



기업지원부